

# 최고품질 벼 품종에 '수광1' 선정

## 농촌진흥청, 병해 강하고 밥맛 우수

농촌진흥청이 최고품질 벼 품종에 '수광1'을 새로 율리며 고품질 쌀 생산 확대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2025년도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 '수광1'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고품질 벼 품종은 농진청이 육성한 벼 가운데 밥맛과 외관, 도정 특성, 재배 안정성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품종에만 부여되는 명칭이다.

이 제도는 2003년 '삼광'을 시작으로 쌀 품질 고급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해 확대돼 왔으며, 현재는 '수광1'을 포함해 모두 11개 품종이 등재돼 있다.

'수광1'은 기존 최고품질 품종인 '수광'의 후속 개량 품종이다. 2023년 개발됐으며, '수광'의 우수한 밥맛과 품질 특성을 유지하면서 단점으로 지적됐던 나뭇잎에서 낱알이 쉽게 떨어지는 현상)과 병해 피해를 개선한 것

이 특징이다.

특히 벼흰잎마름병에 강하고, 벼알이 잘 떨어지지 않아 수확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수발아율은 '수광'보다 낮고, 완전미 도정수율은 높은 편이다. 재배 적지는 서남부와 남부 해안지, 호남·영남 평야지 등이다.

최고품질 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밥맛이 '삼광' 이상이어야 하며, 쌀에 심복백이 없어야 한다. 또 완전미 도정수율 65% 이상, 2개 이상 병해충 저항성, 내수발아성 등을 갖추고 현장 평가에서도 지역 주력 품종 대비 '우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북 고창에서 진행된 현장 평가에서도 '수광1'의 강점이 확인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 '수광1'은 지역 주력 품종인 '수광'보다 벼흰잎마름병에 강했고 나뭇잎 비율도 낮았다.



수광1 재배 전경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 평가에서는 백미 완전립 비율 96.3%, 완전미 도정수율 70.6%로 측정돼 '수광'(각각 93.4%, 68.6%)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밥맛 평가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해 11월 고창군에서 농업인

120여 명이 참여한 품평회에서 '수광1' 선호 비율은 '수광'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2027년 농가 보급종 공급을 목표로 국립종자원,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오상근 기자

## 전북 우수 백년소상공인 표창

### 전주진미집·무주덕유, 선정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장수 소상공인 두 곳이 정부 표창을 받으며 지역 경제의 자부심으로 떠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전주 메밀소바 전문점 '진미집'과 무주에서 머무와인 양조장을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유)덕유'가 '2025년 우수 백년소상공인'으로 선정돼 중소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수 백년소상공인' 표창은 오랜 기간 가업을 이어오며 차별화된 기술력과 경영 철학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소상공인의 모범이 된 업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진미집은 전통 메밀소바의 맛을 기반으로 퓨전 소바 메뉴를 개발하는 등 꾸준한 변화를 시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진미집 소바를 먹기 위해 전주를



찾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덕유는 지역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양수발전소 페터널을 머무와인 저장고와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와인 생산을 넘어 체험·관광이 결합된 지역 관광 마케팅을 활성화한 점이 수상의 배경이 됐다. /오상근 기자

## 설 성수품 원산지 일제단속

### 전북농원원, 2월 13일까지 실시 "둔갑 판매 엄정 조치"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전북농원원)은 설 명절(2월 17일)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 판매와 미표시 등 불법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 농축산물 제조·가공·유통업체 전반이다. 건강기능식품과 전통식품, 갈비세트 등 설 선물세트와 밥·대추·사과·배·육류 등 제수용 농축산물이 주요 점검 품목이다.

전북농원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등 11개 반, 28명을 투입해 값싼 외국산 농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진행된다. 먼저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사이버단속반이 배달업 등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실태

를 살핀 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표시, 쇠고기·돼지고기 이력제, 지리적표시제 이행 여부 등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거짓 표시 업체와 원산지 미표시를 2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업체명 등 위반 내용이 공개된다. /오상근 기자

## 전북농협, 설 명절 성수기 농산물 수급상황 점검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26일 무주농협 친환경유통센터 현장을 방문해 설 명절 성수기 농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명절 기간 수요 증가에 대비해 과일 재고 현황과 수급 동향을 꼼꼼히 살피며 원활한 공급 안정에 힘쓰고 있다.

농협은 설 성수품 10개 품목(배추, 무, 사과, 배, 소·돼지·닭·계란, 밥, 대추)을 대상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3주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성훈 본부장은 "농업인이 정성껏 생산한 농산물로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급 불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설 명절 전까지 식품 안전관리 현장점검과 축산물 위생 점검도 병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 전북 제조업 'AI 대전환' 시동... AX 마스터플랜 착수

전북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I·AI Transformation)을 위한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가 시작됐다.

전북디지털융합센터(전북테크노파크 부설기관)는 2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에서 'AX 온라인 시스템 구축·운영'과 'AX 실증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전북 산업단지의 AI 대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AI 대전환 정책 기조에 맞춰 산업단지 경쟁력을 데이터 기반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전북은 90개 산업단지와 입주 기업의 디지털·AI 활용 수준을 객관



적으로 진단할 체계가 부족해, 국책사업 연계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실증 데이터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용역은 '전북 군산 해양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사업(2025~2028)'의 세부 과제로 추진된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우선 전북 산업단지의 중장기 AX 비전과 산업군별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는 마스터플

랜을 수립한다. 동시에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AI 활용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하고, 수준별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AX 기준 데이터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은 군산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된다. 조선·조선기자재 산업을 시작으로 기계, 자동차부품, 식품, 에너지 등 주요 산업군 특성에 맞는 AX 전환 방향을 단계적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이후 군산산업 실증 성과를 토대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도내 일반·농공단지까지 확대 적용 가능한 '전북형 AX 전환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6일 '2026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팁스(TIPS)는 민간 운영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유망 창업기업을 선별 투자·보육하고,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 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100개 늘어난 800개 사에 R&D 자금을, 650개사에 비 R&D(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AI·딥테크 중심 기술 대전환 시기에 혁신 창업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해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 전북은행, 경영전략회의... 리스크 관리·디지털 혁신 집중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지난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JB금융그룹 아우름 컨퍼스에서 2026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지난해 성과를 돌아보며 새해 경영 목표와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춘원 은행장을 비롯해 임원, 영업점장, 본부 부서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은행은 올해 △자산포트폴리오 고도화 △리스크 관리 혁신 △디지털·AI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맞춤형 채널·인력 전략 △지

역사회와의 상생 강화 △조직문화 혁신 등을 핵심 전략 과제로 삼아 추진할 계획이다.

박춘원 은행장은 "장기화된 지역 경기 침체와 금리·환율 변동성, 정책 규제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고, 건전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전북은행만의 가치를 높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전환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